

大岩山の 藥用植物(III)

육창수,^{1*} 성락선,² 노숙희,¹ 김용해,¹ 원도희,² 하광원,² 장승업²

¹경희대학교 약학대학, ²식품의약품안전청

Medicinal Plants on Mt. Dae-Am in KangWon-Do

Chang-Soo Yook,^{1*} Rack-Seon Seong,² Sook-Hee Ro,¹ Yong-Hae Kim,¹

Do-Hee Won,² Kwang-Won Ha² and Seung-Yeup Chang²

¹College of Pharmacy, Kyung Hee University

²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Abstract – Mt. Dae-Am is the branch-range of DMZ located on the 38° 7' N KangWon-Do in South Korea. The resources of important Herbal medicine (medicinal plants) were *Phacellanthus tubiflorus* (fam.: Orobanchaceae), *Ostericum maximowiczii*, *Dendranthemum zawadskii* Herbich f. *latifolium*, *D. zawadskii* subsp. *acutilobum*, *D. var. campanulatum*, *Halenia corniculata* (fam.: gentianaceae), *Prunus mandshurica* var. *glabra*, *Acanthopanax divaricatus* f. *inermis*, *A. chiisanense*, *A. sessiliflorum*, *Eleutherococcus senticosus*, *Bupleurum longeradiatum*, *Heracleum moellendorffii* subsp. *subbipinnatum*, *Sanicula rubriflora*, *Spuriopimpinella bracycarpa* f. *latifolia*, *Angelica gigas*, *Artemisia montana*, *A. stelleriana*, *Paeonia japonica*, *Phellodendron amurense*, *Schizandra chinensis*, *Menyanthes trifoliata*, and *Gentiana axillariflora* var. *coreana*, etc.

Key words – Mt. Dae-Am, Taxonomy, Medicinal plants, *Dendranthema* species

大岩山은 우리나라의 中央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非 武裝地帶와 隣接하여 있으므로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地域이다.

대암산은 해발 1340 m로서 강원도 양구군 인제면에 인접한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하고 이 산정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동남방향으로 분지형으로 된 습원(濕原)이 발달해 있고, 삿갓사초가 군락을 이루며 그 안에는 상상의 용(龍)의 눈(眼)을 닮은 2개의 용늪이 있어 이곳을 찾는 약학도생들은 감탄을 연발한다.

1970년 이후 이영로, 박봉규, 박만복, 이은복, 김도정, 이경순, 김태희, 육창수 교수 등이 식물생태, 식물상에 대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고 MBC와 공동으로 생약자원조사를 하여 MBC에서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植物區系로 보아 이곳은 중부에 속하고, 특히 해발 약 1200 m 지점에는 高層濕原이 이루어져 있고 Swampy upland는 폭이 약 202 m, 길이 약 295 m정도이다.

大岩山の 高層濕原은 Punch Bowl분지의 남방 약

*교신저자 : Fax 02-966-3885

1 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지역에 대한 식물 연구사를 考察하여 보면 1936년 Ishidoya, Kutanee, Do, Sim, Nishimura씨 등에 의하여 광능, 서흥, 가평, 천마산(개성), 금강산, 감악산, 인천, 강화도 등을 답사하고 123과 460속, 937종, 129변종, 2품종, 1068종류에 대하여 A. Engler, E. Gilg 양씨의 자연 분류법으로 분류하였고 개개식물에 대하여 生地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1969년 이영로 박사는 대암산의 습원식물 40과, 63종, 12변종, 75종류를 발표하였으며, 바늘사초 *Carex chordorrhiza*를 발견하였다.

1975년 박만규, 이은복등은 所産의 목본식물 65종류를 기재하였고 특히 왕가시오갈피, 개오미자를 언급하였다.

동년 서울대학교 정영호 교수는 大岩山과 설악산, 화천, 양구, 건풍산, 향로봉, 철원, 대성산, 간성, 금강, 연천등과 비교한 식물목록을 제시하였고, 大岩山에는 가는바디, 장백제비꽃, 산장대 *Arabis halleri*, 종덩굴, 큰산괘의다리, 덩굴개별꽃, 산작약, 쥐손이풀, 큰잎갈퀴, 긴산꼬리풀, 털떡충나무, 큰두루미꽃(?) 등이 分布

한다고 기재하였으며, 특히 철원, 연천에는 흰바디(白前胡)가 자생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희귀 약용식물의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濕原인 용늪(큰용늪, 작은용늪)의 규모는 작으나 그 주위에는 낙엽활엽수인 신갈나무, 딱총나무, 단풍나무, 갈매나무, 철쭉나무, 회잎나무, 자작나무, 귀룽나무, 화살나무, 물푸레나무 등등이 군집하고 있다.

注目되는 生藥資源의 群落

注目되는 生藥資源의 群落-濕原에 生育되고 있는 생약자원으로는 가는 흑삼릉 *Sparganium stenophyllum* (細葉黑三稜), 조름나물 *Menyanthes trifoliata* (眼采, 眼采根),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var. *membranacea* (馬蹄草), 끈근이 주걱 *Drosera* sp. (地紅花, 食草, 天地花), 줄풀 *Zizania caudiflora* (菰, 蔣草, 艾白), 참비너풀 *Juncus leschenaultii* (野燈心草), 골풀 *J. effusus* var. *decipiens* (燈心草, 碧玉草, 水燈心), 청사초 *Carex lanceolata* (羊胡子草, 羊毛胡子), 대사초 *C. siderosticta* (崖棕根, 崖棕, 寬葉台草), 털쥐손이풀 *Geranium eriostemon* var. *eriostemon* (毛藥老鶴草, 毛玄草), 둥근이질풀 *G. koreanum*, 산오이풀 *Sanguisorba hakusanensis* (紫地榆, 赤地榆, 高山地榆, 小紫草), 미나리냉이 *Cardamine leucantha* (采子七, 白花石芥菜), 박새 *Veratrum patulum* (藜芦, 蒜藜芦, 山葱), 털쥐오줌(설령오줌풀) *Valeriana amurensis* (黑水吉草), 쥐오줌풀 *V. fauriei* (吉草),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var. *kamtschaticus* (假升麻, 升麻草), 산비장이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野升麻),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每葉委陵菜, 雉子筵, 經如草), 참당귀 *Angelica gigas* (當歸, 韓當歸), 왜방풍 *Aegopodium alpestre*, 개시호 *Bupleurum longiradiatum* (竹柴胡), 뱀뿔 *Lycopodium serratum* (千層塔, 蛇交子, 金不換), 금강제비꽃 *Viola diamantiaca* (寸節七), 지리강활 *Angelica parpuraefolia* (智異羌活, 有毒性), 오리방풍 *Isodon excisus*, 곰취 *Ligularia fischeri* (葫蘆七, 荷葉七, 山紫苑) 등이다.

注目이 되는 희귀약용식물

이삭바꽃 *Aconitum pulcherrimum*, 세잎돌쩌귀 *A. triphyllum*, 만삼 *Codonopsis pilosula*, 세잎종덩굴 *Clematis koreana*, 백작약 *Paeonia japonica*, 속속이풀 *Rorippa islandica* (藥香, 風花菜), 가는기린초 *Sedum*

aizoon (景天三七, 土三七, 八仙草, 血山草, 活血丹, 長生景天), 흰바위취 *Saxifraga manshuriensis*, 개시호 *Bupleurum longeradiatum*, 조름나물 *Menyanthes trifoliata*, 큰용담 *Gentiana axillariflora* var. *coreana*, 속담 *Phlomis umbrosa*, 날개하늘나리 *Lillium davuricum* (卷丹), 둥근잎천남성 *Arisaema amurense* var. *amurense*, 칼잎용담 *Gentiana uchiyamai*, 자주쓴풀 *Swertia chinensis*, 돌희향 *Cnidium tachiroei*, 돌달래 *Allium macrostemon* (小根蒜, 野蒜, 小蒜, 小獨蒜, 薤白), 큰뽕무 *Geum aleppicum* (追風七, 追風草, 五氣朝陽草, 烏金丹), 별꽃쓴풀 *Swertia varatroides* 등이다. 특히 가지더부살이 *Phacellanthus tubiflorus*는 기생 식물로서 높이 5~10 cm이고 백색 또는 연한 백색이며 근경은 짧고 여러개로 갈라지며 소인편으로 덮여 있고 원줄기는 총생하며 육질이고 소인편으로 덮여 있다. 7월에 5~10개의 꽃이 속생하며 백색에서 연한 황색으로 변한다. 삭과는 길이 약 1 cm 정도로 타원산 난형이다. 속리산 (천왕봉), 지리산 노고단의 숲속에서 자라나 공해로 인하여 지금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대암산의 해발 1200~1300 m 근처에 야생하고 있다.

楊口 一帶의 自然 藥草

개느삼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 한국 특산속으로 Nakai(中井)씨가 설립한 신속으로 양구일대(楊口一帶)에 드문드문 자생(自生)하는 자연약초의 하나이다. 개느삼은 양구군 부근의 화강암(花崗巖)이 풍화하여된 백토(白土)에 군락을 이루며 7월 초 순경 꽃이 황금색으로 핀다. 평남 맹산지역에서는 어린순을 나물로 이용한 바 있고 꽃은 외상(外傷) 출혈에 지혈제(止血劑)로 민간에서 상용하였으며 특히 관상용으로 쓰라에 심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느삼을 순수한 관상목적으로 미구 채취하여 그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구농촌연구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흰썩 *Artemisia stelleriana* var. *sachlinensis* Nakai - 산흰썩(山白毛艾)은 우리나라 북부지역에 자생하는 약초로서 옛부터 땀썩의 제조용으로 썩 *A. asiatica*과 병용하여 외용제로서 중풍(中風)에 쓰여 왔다. 양구 파로호를 중심으로 강변의 저지대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암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eiophyllum* Nakai - 서흥구절초 *C. zawadskii* var.

*leiophyllum*라고 하며 황해도 서흥지방에서 처음 발견하여 서흥구절초라고 한다. 대암산 저지대의 야산에는 대군락을 이루고 8~9월에 흰색 또는 분홍색의 꽃이 피고, 잎은 거의 원형으로 거치가 크다. 꽃은 정유 성분이 많아 방향이 있고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암산에는 구절초, 서흥구절초, 산구절초, 큰구절초(재배)등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민간에서는 차(茶)의 원료로 또는 부인과 질 환에 전초를 약용하고 있다.

Dendranthema속 (Chrysanthemum屬)

- 1. 두상화는 크고(5~6 cm), 관상화는 황색, 설상화는 백색, 홍자색이다.
 - 2. 잎은 1~2회 중심열~심열, 열편은 선형~피침형
 - 3. 키는 50~80 cm, 잎은 1회 우상으로 중심열
..... 1. 낙동구절초
 - 4. 잎의 열편은 도피침형
 - 5. 키는 10~50 cm, 두상화의 지름 3~6 cm, 잎은 우상천열 2. 바위구절초
 - 5. 키는 50~60 cm, 두상화의 지름 3~5 cm, 백색~홍자색, 잎의 열편은 우상심열 3. 산구절초
 - 6. 잎의 열편은 가늘고 선형모양
 - 7. 잎은 얇고 윤채가 없으며, 열편은 예침두
..... 4. 포천구절초
 - 8. 키는 25~30 cm, 잎은 잘게 갈라지고, 설상화의 상면은 백색, 이면은 홍자색 5. 한라구절초
 - 2. 잎은 중열~천열, 또는 난형~장난형
 - 9. 키는 50~60 cm, 잎은 거의 원형, 큰거치, 두상화의 설상화는 홍자색, 드물게 백색
..... 6. 서흥구절초
 - 10. 키는 30~40 cm, 잎은 중열~천열, 무모
..... 7. 구절초
 - 11. 줄기는 직립, 대형, 잎은 비교적 다육성, 무모키는 80~120 cm, 1회 우상으로 잎은 크고, 설상화는 백색(대암산 재배) 8. 큰구절초
- * 대암산의 해발 1200~1300 m사이에는 겹꽃의 홍자색으로 피어나는 것도 드물게 나타난다.
- * 넓은잎 구절초는 구절초와 별개의 식물인 듯함.

대암산의 약용자원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 참당귀 *An-*

*gelica gigas*는 우리나라 중부, 남부, 북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하나이나 지금은 대부분 재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종은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주위에서 관찰하기가 어렵다.

대암산의 해발 600~1250 m 사이에는 참당귀가 대군락을 이루고 있어 마치 약초의 원시림지대라 할 수 있으며 공해가 전혀 없어 그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자원식물의 價値性을 가지고 있었다.

참당귀의 뿌리 성분은 pyranocoumarin인 decursinol, decursin등과 배당체인 nodakenin이 알려져 있고 그밖에 정유, β -sitosterol, stigmasterol이 규명되어 있다.

當歸의 氣味는 苦溫無毒이며, 主治는 治一切風, 一切氣, 補一切勞, 破惡血, 養新血, 治頭痛心腹諸痛, 和血補血, 婦人漏下絕子, 婦人百病, 大便不通, 產後中風 등에 쓰이고 當歸尾는 破血 목적으로 변용되고 있다. "局方"에는 血病에 사물탕(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각 4.0 g 水煎服)을 쓰고, 萬病回春의 책자에는 보영탕(당귀, 숙지황, 생지황, 백작약, 적복령, 치자인, 맥문동, 진피 각 4.0 g, 인삼, 감초, 오매, 대조 각 1.5~2.0 g, 水煎服)을 응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당귀를 주약으로 하여 상용되어지는 처방으로는 당귀활혈탕, 당귀작약산, 당귀보혈탕, 당귀산, 당귀지황탕, 당귀양혈탕, 십전대보탕, 팔물탕(사군자탕+사물탕)등이 있고, 종기류 등에는 當歸酒(당귀 15.0~16.0 g, 辣桂 18.0~20.0 g, 목향, 백지 각 7.0~8.0 g, 소량의 유향을 넣어 調服), 내탁천금산, 선방활명산, 탁이소독산 등등이 활용되며 당귀(야생품 또는 재배품)를 군약으로 하여 약용되고 있다.

대암산의 *Angelica gigas*는 아직도 때가 묻지 않은 야생상태로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술적인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고 사료된다.

藥本 *Angelicae tenuissimae Radix* - 해발 1,300 m 근처에 무리를 지어 자생하는데 뿌리는 주로 두통(전정통)에 사용한다.

天地花 *Droserae Herba* - "용늪" 주위에는 끈끈이주걱 *Drosera* sp.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발 1,200 m 에 그 생육이 왕성하다.

끈끈이주걱의 異名은 金雀花, 地紅花, 食虫草, 補草, 珍珠草라고도 한다.

甘, 寒, 無毒하여 전초를 청열해갈, 양혈통입, 감기, 해수, 구갈, 토혈, 각혈, 임병, 타박상, 신경성, 피부염 등에 사용되며 *D. peltata* var. *lumata*에는 plumbagin, droserone hydroxynaphthoquinone등의 성분이 알려

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관악산, 대암산의 습지에 분포하고 있다.

細辛 Asiasari Radix - 잎은 심장형으로 꽃은 검은 홍자색이고 뿌리를 씹으면 몹시 매운 맛이 난다. 죽도리풀의 異名은 小辛, 細草, 少辛, 山人蓼이라 한다.

이 약은 古來로부터 기침, 감기, 두통, 거풍, 축농증, 치통, 풍습비통, 明目, 汗不出, 益肝膽, 喉痺, 코막힘 등에 1회 3.0~4.0 g을 약용한다.

정유성분은 methyleugenol, 1,8-cineol, eucarvone 등과 lignan계인 (-)jasarin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약은 대한약전(KP)에 수제되어 있으며 수출생약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재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의문보감"에는 세신탕(세신 5.5~6.0 g, 만형자, 서점자 각 4.0 g, 승마, 황련, 방기 각 3.0 g, 황백, 지모, 박하 각 2.0 g, 필발 소량, 水煎服; 주약효는 上片牙痛), "동원백서"에는 세신산(마황 10~12 g, 계지, 羊脛骨恢 각 8.0~9.0 g, 강활, 초두구 각 6.0 g, 당귀, 고본, 창출, 방풍, 시호, 승마, 백지, 세신 각 1.0~1.5 g, 양치한 후에 전제를 바른다.)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축농증에는 細辛膏를 코에 문질러 준다.

대암산의 전지역에는 비교적 고르게 죽도리풀(細辛)이 분포하고 있다.

寸節七 Viola diamantiacae Folium - 금강제비꽃 *Viola diamantiaca*는 처음 Nakai씨가 금강산에서 채집하여 신종으로 하였으며 그 후 설악산, 오대산, 덕유산에서 발견된 이래 대암산의 대군락이 처음이며 자원의 가치가 인정되고 최근에는 이 약을 청열해독제, 항암제(또는 항종양제), 종기, 맥입증, 독사물린데, 외상출혈, 폐결핵 등에 1회 8.0~12.0 g을 전제로 하여 마신다. 성분은 flavonoid glycoside가 알려져 있다.

千層塔 - 뱀톱 *Lycopodium serratum*은 해발 1,300 m 樹陰下에 무리를 지어 생육이 왕성하다. 異名은 蛇交子, 蛇足草, 千金虫, 虫天松, 萬年杉, 金不換, 橫紋草, 打不死등등으로 복잡하다.

성분은 alkaloid인 serratine, serratinine, serratandine, serratinidine, lycodine등등이다.

천층탑의 藥性은 性溫, 性涼, 酸平, 味甘, 味辛, 微苦, 微溫, 無毒, 有小毒이다. 主治는 退熱, 除濕, 消癥, 止瀉, 治肺熱, 腫毒, 解毒 등에 사용한다고 "植物名實圖考"에 기록되어 있다. 1회 4.0~8.0 g을 전제로 하여 복용하고, 타박상, 멍이 든 데에는 외용제로 이용하여도 무관하다.

升麻草 Aruncii Radix - 눈개승마 *Aruncus dio-*

*cus var. kamschaticus*는 고산지역에 자라는 다년초로서 그 뿌리를 升麻草, 金毛三七이라 한다.

뿌리는 筋骨疼痛에 사용하고 1회 8.0~12.0 g을 水煎服, 증상에 따라서 약용량을 증가할 수 있다. 대암산의 해발 1,000~1,200 m에 대군락을 이루고 있다.

毛茛玉竹 Polygonati inflati Rhizoma - 통통 굴레 *Polygonatum inflatum*는 높이 30~45 cm, 잎의 뒷면은 粉白色, 꽃은 3~7개의 꽃과 더불어 같은 수의 포가 달리고 근경은 굵다.

우리나라의 시판품의 옥죽에는 등굴레, 통등굴레, 왕등굴레가 혼입되어 약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진황정(주로 남부지역)도 섞인다.

이 약은 옛부터 뿌리줄기(根莖)를 養陰, 潤燥, 除煩, 止渴, 治熱病陰傷, 咳嗽, 煩渴, 目痛, 頭痛, 不安, 五勞七傷 등에 상용하여 왔고 根莖은 채취하여 一蒸하고 日乾한다. 최근에는 毛茛玉竹을 혈당강하 또는 혈압강하 목적으로 쓰인다. 해발 500~1,250 m의 樹陰下 또는 음지쪽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래 Actinidiae Radix - 다래 *Actinida arguta*는 낙엽성 덩굴로서 열매는 난형~난원형으로 길이 약 2.0~2.5 cm로서 10월에 황록색으로 성숙하고 식용한다. 彌猴梨(軟棗彌猴桃, 圓棗子, 藤梨, 洋桃藤), 즉 彌猴梨根(미후이근:다래나무뿌리)은 중국대륙에서 건위, 청열, 利濕, 소화불량, 구토, 복통설사, 황달, 풍습관절통, 이뇨, 지혈, 청열해독, 清熱消腫, 生肌, 斂血, 催乳, 소염 등등에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식도암, 위암, 황달의 치료, 소화불량, 류마티스관절염, 유즙분비 촉진 등에 상용하고 있다.

"식도암"에는 軟棗彌猴根, 水楊梅根 각 60 g, 野葡萄根 30 g, 半枝蓮, 半邊蓮, 鳳尾草, 白芽根 각 15 g을 煎劑로 하여 수회 分服한다.

위암의 경우는 다래나무뿌리 60 g, 호장근 30 g을 합쳐서 EtOH로 추출하여 여과하고 그 엑기스를 매회 20~30 cc로 투여하면 원발성종양 또는 전이병소가 1/2로 위축되고 유문부위암, 소만부위암, 胃底噴門部癌 등등에서 경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위암에 대하여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중에서는 塊狀物의 축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황달치료에는 다래나무뿌리 30 g, 꼭두서니뿌리 15 g, 담죽엽 6 g, 도꼬마리뿌리 9 g, 소계 15 g을 전제로 하여 쓴다고 한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는 다래나무뿌리 15 g, 목방기 15 g, 홍초 9 g, 호장근 9 g을 전제로 하여 복용한다. 유즙분비 촉진에는 다래나무뿌리 60~90 g을 전제로 하여 분복하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등등에는 뿌리를 30~60 g을 약용한다.

호장근은 대암산 전지역에 분포하고, 다래나무는 해발 900~1,200 m에 생육하고 있으며 공해가 없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竹柴胡 *Bupleuri longiradiati Radix* - 시호의 대체생약으로 야생종의 뿌리를 약용하며 일명 大葉柴胡라고 한다. 이약은 和解表裏, 疏肝, 升陰, 寒熱往來, 胸滿, 口苦, 脫肛, 월경불순, 자궁하수 등에 사용된다.

성분은 α -spinasterol과 saponin glycoside가 알려져 있다. 대암산의 해발 900~1,200 m 사이에 대군락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죽시호의 야생종도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威靈仙 *Clematis Radix* - 오아리 *Clematis manshurica*는 대암산의 해발 300~400 m의 저지대에 야생되고 있으며 뿌리는 治風濕, 治風痛, 腰膝冷痛, 이뇨 등에 쓰이나 小毒이다. 이 약은 威靈除痛飲의 군약으로서 小毒이 있어 약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분은 dematoside A가 알려져 있다.

해발 1,200 m 습원지대의 주위에는 세잎종덩굴 *Clematis koreana*, 요강나물 *C. fusa* var. *coreana*, 종덩굴 *C. fusa* var. *violacea* 등의 자원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생육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오미자 *Schizandrae Fructus* -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는 대암산의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공해가 없어 뚜렷한 약효가 기대된다. 현재 시판품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열매를 호흡기질환, 해수, 천식, 간염 등에 응용하기가 매우 難하다.

과실의 유효성분인 ligan계인 gomisin A, B, C, schizandrin, benzoylgomisin, tigloylgomisin, angeloylgomisin, pregomisin 등과 α, β -chamigrene, 정유, 유기산, 당 등등이 알려져 있다.

오미자를 군약으로 하는 처방은 오미자탕(오미자, 파극, 녹용, 산수유, 숙지황, 울금), 오미자산(오미자 75g, 오수유 18.75g 가루로 만들어 1회 6.0~7.0g을 미음에 복용함), 오미백출산(백출 11.0~12.0g, 진피 6.0g, 적복령, 목통, 천궁 각 3.8~4.0g, 산후부종) 등등이 있고, 그 밖에 기관지염, 천식 등에 변용되는 소청룡탕(반하 5.5~6.0g, 오미자, 계피, 작약, 마황, 세신, 감초, 건강 각 3.0~4.0g)이 있다.

오미자는 平喘, 滋腎, 止咳, 止汗, 生津止渴, 固精止瀉, 養心安神, 肝疾患 등에 변용되고 있는 약전수제 생약이다.

五加皮 *Acanthopanax Radicis Cortex* - 오갈피나무 *Acanthopanax sessiliflorus*는 대암산의 해발

400~1,100 m 사이에서 散見이 되고, 지리산오갈피나무 *A. Chiisanensis*는 中腹에서 정상부근까지 분포하고 있다. 또한 민가시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nticosus* Maxi. var. *subinermis*는 대암산의 정상부근에서 볼 수 있다. 이 산에는 10년 이상의 묵은 오가피가 密生狀態로서 枯死木으로 되고 있으나 그 자원은 풍부하다.

활성성분은 lignan glycoside인 acanthoside B, C 등을 비롯하여 free lignan인 savinin, sesamin, phytosterol인 β -sitosterol, stigmaterol, campesterol 등이 알려져 있다.

오가피는 신농본초경의 中品에 수재되어 있고 고래로부터 根皮와 幹皮를 소아병(보행불능), 心腹痛, 생식기질환, 신경통 등에 사용하여 왔고, 특히 오가피산은 得效方, 동의보감에 인용되어 있는 名方으로서 오가피 9.37g, 우슬, 모과 각 5.62g을 가루로 하여 1일 3.75g을 소아에 투여하면 걸음을 정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하며 단방으로는 오가피를 분말로 하고 酒調하여 頂骨에 붙이면(외용제) 목뼈가 유연하여 진다.

蔓參 - 만삼 *Codonopsis pilosula*은 해발 1,100~1,300 m의 深山地域에 드물게 자생하고 있으며 동속의 식물로는 소경불알 *C. ussuriensis*로 대암산에 분포하고 있다.

만삼(일명 黨參)은 肺虛咳嗽, 補中益氣, 生津止渴, 강장 등에 뿌리를 건조하여 사용하고, 方劑例는 蔘耆安中散, 蔘耆白朮散 등이 있다.

식물자원

참배암차즈기 *Salvia chanroenica* - 참배암차즈기는 경상북도 조령에서 1901년에 채취한 것으로 Nakai 씨가 신중으로 고증하였고, 일명 토단삼이라 하여 그 뿌리를 말려서 한약재로 사용한 바가 있다.

대암산 해발 700~800 m 중간에 군락을 이루고 꽃은 8~9월에 피는데 한국 *Salvia* 속에서 등황색의 꽃이 피는 것은 *S. chanroenica* 뿐이며 우리나라에는 창영, 조령, 지리산, 가야산, 금강산, 설악산, 대암산에 분포한다.

지렁쿠나무 *Sambucus sieboldiana* var. *miqueli* Hara - 낙엽관목으로 높이가 4~4.5 m이고 2년 가지에는 자갈색의 세로로 긴 피목이 있다. 잎은 대생하고 2~4쌍의 소엽으로 구성된 기수 1회 우상복엽, 원추화서는 가지 끝에 달리고 꽃은 연한 황색~연녹색, 꽃밥은 황색, 자방은 無毛, 암술머리는 자주빛이 돌고

열매는 7월에 홍색으로 성숙한다. 수피, 근피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응용된다.

꽃개회나무 *Syringa wolffii* - 강원도 이북에서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높이 2~3.5 m, 가지에 피목이 있다. 잎은 대생, 맥상은 미모, 꽃은 6~7월에 피고 원추화서는 신지(新枝)에 달리고 환관은 연한 홍자색으로 방향(芳香)이 있다. 열매는 9월에 성숙한다. 이 꽃개회나무의 꽃은 정유성분이 있고 향료의 원료식물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특산으로 용늪 주위에 자생하고 있다.

비로용담 *Gentiana jamesii* (큰용담: 재배) - 다년초로서 높이 4~12 m, 잎은 대생, 무병, 꽃은 초두지단에 頂生, 꽃은 자색으로 핀다.

중북부 특히 DMZ(대암산)의 정상에 야생하고 잎은 위장질환에 사용되는 민간약이다. 흰비로용담(꽃은 백색)은 백두산 전 지역에 자생한다.

꽃향유 *Elscholtzia splendens* - 일년초, 줄기는 방형, 높이 50~60 cm, 잎은 대생, 長柄, 향유에 비하여 화수는 대형, 꽃은 붉은 자색이다. 전초는 하절에 차로하여 마시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또한 대암산 저지대 도로변에는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자주쓴풀 *Swertia pseudo-chinensis* (부별꽃 쓴풀) - 쓴풀 *Swertia japonica*에 비하여 全株가 자색을 띠고 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꽃은 벽자색이다. 전초는 고미건위약, 발모약(發毛藥)으로 응용하고 있다. 뿌리는 苦味가 있고 한명(漢名)은 당약(當藥)이다.

돌회향 *Tilingia tachiroei* - 다년초, 뿌리는 약간 비후, 바위 위(岩上)에서 생육이 왕성하고, 복합산형화서, 소산경은 10~15, 총포는 선형, 소총포는 다수, 꽃은 백색으로 하위자방이다. 광양 백운산, 강원도 대암산에 자생한다.

등근이질풀 *Geranium koreanum* - 다년초, 원줄기가 네모나고, 탁엽은 광난형, 막질, 꽃은 취산화서, 수술의 하부가 익상, 수술의 하반부는 미모, 삭과는 유모이다. 전초는 민간에서 지사제 및 무즙에 외용한다.

산오이풀 *Sanguisorba hakusanensis* - 대암산 정상에 대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화서가 길고 꽃은 홍자색, 수술 6~12개, 기본종에 비하여 잎의 톱니가 크고 포(苞)가 크다

중앙대 황완균 교수에 의하여 잎에서 gallic acid-3-D-β-D-(6'-O-gallyl)-glucopyranoside, quercetin-3-O-β-D-galactopyranoside, quercetin-3-O-β-D-L-arabino-side, 3β,19α-23-tetrahydroxyurs-12-en-28-oic acid-

28-O-β-D-glucopyranoside 등을 단리하여 그 화학구조를 밝혔고 성분으로 보아 외상출혈의 지혈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매발톱꽃 *Aquilegia buergeriana* - 산매발톱에 비하여 꽃받침조각이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자색이다. 유독성 식물자원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삭바꽃 *Aconitum kusnezoffii* - 투구꽃에 비해 자웅이주이고 잎은 3소엽, 골돌 5개, 꽃은 청색으로 용늪 주위에 생육이 왕성하고 괴근은 유독(有毒)하다.

괴근에는 alkaloid인 aconitine, mesaconitine, hypaconitine 등의 맹독성 성분이 있다.

쥐다래나무 *Actinidia kolomikta* - 개다래 *A. polygama*에 비하여 잎의 밑은 종종 심형(心形)이며 꽃이 필 때 백색 또는 연한 홍색이다.

좁은잎 어수리 *Heracleum moellendorffii* for. *angustatum* - 기본종에 비하여 잎이 좁고 2회우상으로 갈라지며 꽃 백색~연분홍색, 뿌리는 굵고 만주독활의 대응으로 응용된다. 백두산의 좁은잎어수리는 백색꽃보다 연한자주색을 띤다.

지리강활 *Angelica purpurafolia* - 뿌리는 비대하고 바깥면은 흙갈색으로 가로로 자른 면은 백색 유액을 분비하고 유독성이다.

매년 지리강활 뿌리를 당귀 *Angelica gigas* 뿌리로 잘못 감별하여 약화사고가 종종 있다. 잎의 분지액은 뚜렷한 "자색"이 있어 당귀와 구별이 된다. 야생 당귀는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사물탕"에서도 가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리강활의 뿌리는 대독(大毒)하다

저지대의 식물자원

대암산의 해발 300~500 m에는 산기름나무 *Peucedanum deltoideum*, 쇠뜨기, 황고사리, 비늘고사리, 십자고사리, 일엽초, 닭의장풀, 지느러미영경귀, 점나도나물, 세잎양지꽃, 명아주, 질경이(車前子), 콩제비꽃, 서울제비꽃 *Viola seoulensis*, 호제비꽃, 제비꽃, 등근털제비꽃, 줄방제비꽃, 털제비꽃, 쥐털이슬, 바늘꽃, 노루발풀, 개바디나물, 어수리, 미나리, 기름나물 *Peucedanum terebinthaceum*(石防風), 참나물, 큰까치수영, 좁쌀풀, 용담, 산해박 *Cynanchum paniculatum*(白薇), 꽃말이, 참꽃말이, 오리방풀, 산박하, 향유,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층층이꽃, 꽃머리리밥풀, 토현삼, 꼬리풀, 돈나물, 꼬들빼기, 인동덩쿨, 제비쑥, 두드러기쑥(귀화식물), 등글레, 털중나리, 뚝갈, 칼기덩굴, 솔

나물, 산여뀌, 미꾸리나시, 조희풀, 미나리아재비, 매화마름, 매발톱나무, 고추나물, 물레나물, 산괴불주머니, 가는기린초, 물매화풀, 고광나무 *Philadelphus schrenkii*, 국수나무, 조팝나무, 산딸기나무, 질레나무, 집신나물, 뱀무, 양지꽃, 뱀딸기, 당마가목 *Sorbus amurensis*, 참싸리, 나비나물, 붉나무, 노랑물봉선, 노박덩굴, 달맞이꽃, 꽃개화나무, 큰잎갈기, 민둥갈기, 꼭두서니, 새삼, 물앵도나무, 쥐오줌풀, 마타리, 까실쑥부쟁이, 개미취, 구절초, 산쑥, 흰산쑥 *Artemisia stelleriana forma daeamsanensis*, 황해쑥, 쑥, 뺨쑥, 넓은잎외잎쑥, 별가치, 영경귀, 고려영경귀, 서덜취, 나래취, 수리취, 쇠서나물, 조팝나물, 이고들썰기, 두메고들빼기, 씌바귀 *Ixeris dentata*, 민들레, 여로, 윤관나물, 얼레지, 말나리, 솜대, 밀나물, 붓꽃, 골풀청비너풀, 긴겨이삭, 산새풀, 달뿌리풀, 줄, 방울고랭이, 바늘골, 청사초, 밀사초, 으아리, 애기똥풀 등이 混在 하고 있다.

중복(中腹)이상의 식물자원

해발 600~1,200 m에는 참당귀 *Angelica gigas*, 동부족도리풀 *Asiasarum heterotropoides* var. *mandshuricum*(사관품, 細辛), 족도리풀, 네잎갈귀, 함박꽃나무, 노린재나무, 천남성, 참나물, 호장근, 관중, 박쥐나무, 노랑제비꽃, 처녀치마, 여로, 영란, 더덕, 용담, 초롱꽃 *Campanula punctata*, 만삼 *Codonopsis pilosula*, 소경불알 *C. ussuriensis*, 피나무, 뽕피나무, 큰수리취, 사스레나무, 까치박달, 박새, 동의나물, 샷갓사초 *Carex dispalata*(초는 자주빛을 띄고 대군락을 이루고 있다.), 왜방풍 *Aegopodium alpestre*, 지리강활 *Angelica purpuraeifolia*, 왜우산풀 *Pleurospermum kamtschaticum*, 참나물 *Spuriopimpinella brachycarpa*, 붉은참반디 *Saniclaclar rubriflora*, 개시호 *Bupleurum longeradiatum*, 신감채 *Ostericum grosseratum*(신감채 잎, 줄기는 신미(辛味)가 있다. 당귀의 일종), 꿀풀(夏枯草), 박쥐나물, 붉은병꽃나무 *Weigela florida*, 철쭉, 개똥나무, 쥐똥나무, 수수꽃다리, 곰취 *Ligularia fischeri*, 속단, 오리방풀 *Rabdosia excisa*(拘日草, 尾叶香茶菜), 그늘들썰기, 이삭바꽃 *Aconitum pulcherrimum*, 큰개별꽃, 요강나물, 귀룽나물, 꼬리조팝나무, 날개하늘나리 *Lilium davuricum*, 여로, 끈끈이주걱, 딱지꽃, 가는오이풀, 털쥐손이풀, 메역순나무, 들비늘꽃, 감자개발나물, 큰앵초 *Primula jasoana*, 비로용담, 조름나물, 애기썰싸리, 벌개덩굴, 송이풀, 숫장대 *Lo-*

belia sessiliflora, 솔채꽃 *Scabiosa mansenensis*, 야광나무, 산돌배, 팔배나무, 당단풍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줄참나무, 물오리나무, 황철나무, 왕산뱃나무, 네잎갈기, 숫명다래나무, 좁통발, 대사초, 네모꼴, 골풀, 참비너골, 개울통이, 동자꽃 *Lychnis sieboldii*, 바위말발도리, 뿔장대 *Arabis lyrata* var. *kamtschatica*, 통둥굴레, 각씨둥굴레, 큰줄방제비꽃?, 털팽이눈, 기생꽃 *Trientalis europa*, 금강제비꽃, 왕숨대 *Smilacina japonica* var. *mandshurica*, 수리취, 노랑물봉선, 미나리냉이, 우산나물, 도꼬로마, 진교, 앉은부채, 국화마, 짚신나물, 세잎종덩굴 *Clematis koreana*, 종덩굴 *C. fusca* var. *violacea*, 꿩의 다리, 금강애기나리, 눈개승마 *Aruncus sylvestris*(장미과, 假升麻, 筋肉疼痛에 뿌리와 전초를 약용한다.), 섬장대, 터리풀, 화살나무, 회잎나무, 치일봉부엽란, 산평의다리 *Thalictrum tubiferum*(深山白蓬草, berberine, 黃連代用品으로 약용할 수도 있다.), 샷갓나물, 접골목, 둥근잎천남성, 산비쟁이, 단풍취, 선이질풀, 개면마, 밀나물, 털질경이, 꼭두서니, 썰싸리, 궁궁이 *Angelica polymorpha*등이 混生하고 있다. 해발 1,200~1,350 m에는 오갈피나무, 지리산오갈피나무 *Acanthopanax chiisanense*, 음나무, 붉은인가목 *Rosa marretii*, 자작나무,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 배암톱 *Lycopodium serratum*, 털진달래, 돌양지꽃, 오미자, 물푸레나무, 바위채송화, 만병초, 덩굴개별꽃 *Pseudostellaria davidii*, 바위떡풀, 둥근조팝나무, 붉은터리풀, 큰뽕무 *Genum aleppicum*(水榭梅: 全草는 청열해독, 이노, 종기, 지통, 장염, 이질, 구내염, 인후염, 소아경풍, 타박손상; *eugenol*, *geoside* 등), 물앵도나무,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aefolia*, 솔채꽃, 나도제비란 등이다.

결 론

대암산에서 자생하는 생약자원은 50여종이고 그 중에서 처방에 이용되는 것은 前胡, 日前胡, 吉草根, 地榆, 當歸, 竹柴胡(시호의 대체품 생약), 野杏仁, 白芍藥, 龍膽, 天南星, 天地花, 細辛, 毛茛玉竹, 藤梨, 威靈仙, 五味子, 五加皮, 澤蘭, 蔓參(黨參), 車前子, 白薇, 益母草, 香薷, 金銀花, 忍冬, 黃耆, 貝藥, 白花貝漿, 大薊, 蒲公英, 海桐皮, 沙參, 辛甘菜, 夏枯草, 草烏, 秦艽, 茜根, 秦皮, 天麻, 茵陳蒿, 韓茵陳, 九折草, 黃柏, 葛根, 玄草, 山藥, 續斷, 半夏, 太子參 등이며, 특히 蒼朮, 白芍藥, 柴胡, 竹柴胡, 升麻, 白附子, 智異草烏, 五加皮 등은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인용문헌

1. 李奉奎 : 동부비무장지대의 식생, p.65~71(197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2. 李萬奎 : 향로봉의 식물상, p.91~111(197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3. 元炳旵 : 비무장지대인접지역의 조류조사, p.160~180(197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4. 정태현 : 한국동식물도감(제5권), p.109~110(1970), 문교부
5. Hiroe : Umbelliferae of Asia No.1. p.70~71(1958), Kyoto JAPAN
6. 이영로 : 대암산의 습원식물, 식물분류학회지, p.7~11(1969)
7. 이창복 : 한국식물도감, p.510~580(1985), 경문사

(2000년 2월 18일 접수)